

# 자문내역서

조계원 (고려대)

## 검토 의견

이 논문은 자기 소유권(self-ownership)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전통이 이상적 민주주의의 주체적 행위자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을 비판하면서, 스투어드십 개념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 주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자기 소유권을 (사적인) 소유 개념으로 해석하여 자신을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지능과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필요한 자유의지를 보장하지 못했다. 또한 공화주의는 누구도 다른 누군가를 지배할 수 없으므로 정치적으로 모두가 평등한 지위를 가져야 함을 주장했지만, 집단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능을 보장하지 못하며 법의 지배만으로는 자유의지의 발현을 낳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이론이 상정하는 민주적 주체에 대한 해석은 흥미롭다. 이론적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저자의 해석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비판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견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자가 제시하는 기준인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지능은 너무 과도하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민주적 의사결정의 질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주체 개인의 지능으로 본다면 일정한 지능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민주주의 주체에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이러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여겨지는 않기 때문에 지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기술해 줄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적 주체가 자유의지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에 기초한 대표의 원리 등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예상되므로 조금 더 자세한 논증이 필요하다.

저자가 제시하는 자율적 주체는 자신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지만 자신을 가꾸고 책임지는 존재이자, 타인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타인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존재이다. 저자가 비유로 들고 있는 세입자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의 처분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어디까지나 다른

## 검토 의견

사람의 자산을 맡아서 돌보는 대리인에 가깝다. 그리고 대리인은 주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자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이는 주권자/주인으로 상정되는 민주적 주체에 대한 기존 관념과 상당히 충돌하는 지점이다. 또한 승무원의 비유처럼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 간의 관계가 승무원-승객의 관계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민주주의에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이는 동료 시민을 존중하는 것 정도가 아닐까 싶다.

저자의 주장과 민주주의의 문제해결능력을 강조하는 진리발견적 민주주의(epistemic democracy) 이론의 문제의식이 일정 부분 공유하는 지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들은 다중의 지혜, 즉 다수의 결정이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에 관심을 갖는다. 저자가 말하는 자율적 주체가 그 자체로 공익을 추구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 집단적 결정 과정의 조건이 필요한 것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